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춤 아카이브 사진전-찰나·동행'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무용’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4일부터 공연 아카이브 사진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4일부터 가을 전사로 '공연 아카이브 사진전-찰나·동행' 전시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무용전문사진가 최영모씨와 공연전문사진가 박상운이 평생 찍어 온 사진 작품 및 공연기획자 장승현의 무용 관련 자료들이 출품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무용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최영모씨는 무용이라는 특정 장르를 약 35년 카메라에 담아 온 이 분야의 개척자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선보일 작품은 1980~90년대 한국무용계를 주름잡은 무용인들의 흑백 인물사진 '우리시대 무용가 30년-시간의 회귀'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재학생들의 발레 공연 사진 <꿈의 순간> 등 50여 점으로, 고인 또는

원료가 되어 버린 한국 현대무용 거장들의 클로즈업된 얼굴들,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를 꿈꾸는 영재원 재학생들의 열정 품은 자유로운 몸짓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박상운씨는 28년간 서울세계무용축제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 공연의 생생한 모습을 사각 프레임에 담아 오고 있으며, 강선영, 김덕명, 김수악, 문장원 등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전통 무용가들의 공연 모습은 이제 희귀한 사진이 되어 버렸다.

특히 남원이 낳은 명무(名舞) 조갑너 선생의 민살풀이 춤 사진은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뜻밖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중요무형문화재 고성 오광대보존회의 선 굵은 영남 남무(男舞) 사진, 이탈리아 국립 아테르 발레또 무용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모습 등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공연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 로비에서는 춤작업방이라는 이름으로

공연기획자 장승현의 한국 무용관련 자료들인 각종 서적 및 잡지, 사진, 사진집, 공연홍보인쇄물, 보도자료 수첩, 메모, 무용대본 집필 흔적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30년 넘게 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거나 수집한 살아 있는 기록물이다. 전시와 연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으로 13일 (사)영아티스트포럼엔터테인먼트에서 주관하는 '제7회 영아티스트 포럼'을 시작으로 출판 작가인 박상운의 체험 프로그램 나도 사진가, 김화숙 현대무용가의 인문학 강좌,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장의 토크 콘서트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미술창작 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 문의는 063)620-5660~5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정읍시생활문화센터, 지역민과 함께하는 '블랙투어리즘' 프로그램 가져

엽서 제작 · 미니어처 만들기 등

서지말장학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읍시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관한 이래 지역민을 위한 꾸준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읍시생활문화센터는 지난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18년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2차 공모에 선정됐다. 관련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블랙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와 문화 콘텐츠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문화시설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민에게 근대문화유산인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등록문화재 제175호)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불균형한 문화 접근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의 다양한 방문객에게 역사인식을 심어주어 문화재창출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오는 6일에 지역민과 정읍시역사문화연구소(소장 김재영)의 40여명이 신태인 일대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인문

학 투어를 진행한다. 10월에는 김재영 소장을 초빙하여 '신태인 지역의 민족운동과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방안'이란 인문학강좌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영상자료를 전시하여 신태인을 한눈에 보도록 했으며 지역 엽서 제작·쓰기, 미니어처 만들기 등도 실시한다.

정읍시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의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억1500만원(국비 2억원)을 들여 공연장, 연습실, 음향실 등을 갖춘 645.24㎡ 규모로 2017년 6월 준공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전풍중씨가 기증한 고대국가 백제 토기 3점.

## 고창 고인돌박물관에 향토유물 기증 이어져

전풍중씨, 고대국가백제 초기의 토기 등 기증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올해 2월부터 수집하기 시작하여, 기증된 향토유물이 40여 점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 공음면 전풍중씨가 고대국가 백제 초기의 토기 3점을 기증해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박물관에 따르면 공음초등학교 교장인 전풍중씨는 향토유물 수집 소식을 듣고 타남문단경호(打捺文短頸壺), 타남문항아리, 동근바닥승석문(繩帶文)항아리 3점을 기증했다. 이들 자료는 선대로부터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오던 것이다.

전풍중씨는 "고인돌박물관에서 향토유물을 수집한다는 문구를 접하고 집안에 보존되어 오고 있는 토기를 떠올리고 박물관에 직접 방문해 유물을 기증하게 됐다"며 "고창의 소중한 자료가 집안의 창고 그늘에 있기 보다는, 고창의 역사적 유물로서 고창의 찬란한 문화를 조명하고 밝히는데 연구되고 활용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남문단경호(打捺文短頸壺), 타남문항아리, 동근바닥승석문(繩帶文)항아리 등 3점은 고창의 향토자료로서 고창 지역의 고대의 토기의 발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타남문단경호(打捺文短頸壺) 전반적으로 어두운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몸통은 구형에 가깝고 몸통에는 타남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이 문양이 바닥에 까지 이어진다. 즉 바닥면을 소성 전에 납작하게 눌러

편평하게 만든 토기인 것이다.

동근바닥승석문(繩帶文)항아리는 몸통 전체에 승석문(繩帶文)이 시문되어 있는 토기로 납달감을 세우듯이 그릇을 세우기 위하여 바닥쪽을 약간 납작하게 만들었으나 거의 구형에 가깝다.

이는 동근바닥의 형태에서 주거지의 이동 등에 의해 토기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며, 동근바닥 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타남문항아리는 몸통은 어깨가 가장 넓고 하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원추형이나 구형, 또는 길쭉한 구형에서 형태상 한 단계 나아간 유물이며 바닥도 원형의 매끄러운 평면으로 완전하게 조형되어 있다.

고인돌박물관 관계자는 "고창의 역사적 유물은 많은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보되었으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민간에서도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유물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들은 마한시대 모로비리국의 역사에서부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하는 자료들이 만큼 향간에 떠돌기 보다는 박물관 등 보존 관리 시설에 모아져 우리의 문화를 다지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기증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